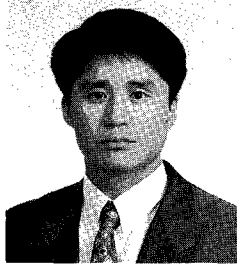


# '98년 복경기 육계가격 전망



이 보 균  
본회지도조사 과장

## 1. 동향

IMF체제 이후 육류소비가 큰폭으로 격감되었다.

특히 닭고기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복경기를 앞두고 적은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육계값은 생산비를 넘나드는 대체로 낮은 시세가 형성되었다.

이때 참고할 사항은 육용종계입식수수, 실용계생산잠재력, 종계사료생산실적, 종란입란실적, 경제상황과 경험 등을 토대로 월별 닭고기 생산량을 추정, 출하시점의 월별 또는 일별 소비지수와 비교하여 닭고기생산량이 적게 느껴질 때 입추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여름장마 직후 불볕 더위와 함께 수요는 증가되는 반면 공급이 따르지 못한 기간에 육계값은 항상 상승되었던 점을 감안,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철의 날씨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자료분석

### 가. 육용종계입식 현황

'97년도에 입식된 육용종계는 3,947,420수로 '96년대비 8.9%가 감소되었다. 이중 하반기에 입식된 종계는 1,885,800수로 3.8%

가 감소되었고, 이번 복경기 실용계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난해 8~10월에 입식된 육용종계는 1,163,900수로 오히려 1.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

'98년 상반기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은 212,430천수로 '97년 동기 대비 9%가 감소되었다. 반면 하반기는 175,195천수로 16.3%가 감소되었는데 이중 3/4분기는 94,117천수 4/4분기 81,178천수로 각각 9.4%, 23.2%가 감소되었다. 즉 IMF체제 이후 닭고기소비 감소는 대략 25% 내외로 감소되는데 반해 '98년 상반기의 실용계 생산잠재력은 이를 따라 잡지 못했으며, 또한 현재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복경기까지도 닭고기생산 감축에 있어서 소비감소를 따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4분기에 가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종계사료생산실적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 사이 닭고기생산에 영향을 미칠 전국 종계사료 생산실적은 4월 20,714톤 5월 19,929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1%, 24.9%가 감소되었다. 이같은 종계사료생산량의 감소는 닭고기의 소비

감소 25% 내외임을 감안할 때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지난해 7~8월 수도권 지역의 육계값은 각각 1,156원 1,065원 이었다.

**라. 육용종란 입란실적**

본회에서 13개 부화장을 대상으로 집계한 입란실적에 의하면 금년도 복경기의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칠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3일사이에 입란된 육용종란은 9,501천개로 지난해 같은기간 10,538천개 대비 9.8%가 감소되었다. 이는 IMF 이후 감소는 닭고기소비 감소에 비춰 볼 때 향후 더 큰폭의 감소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계열주체의 입식은 지난해 말에 비해 '98년 1/4분기 들어 대폭 감소되었던 것과는 달리 2/4분기는 큰폭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복경기를 대비한 입란실적을 추정해 볼 때 전년동기 대비 큰폭 감소된 반면 지난 2/4분기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다.

**마. 웅삼계용 병아리생산 전면 중단**

계란의 과잉생산이 장기화되면서 채란업체가 깊은 불황에 빠지자 국내 13개 산란용 종계업자 전원이 모여 계란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도저히 채란

업계를 호황으로 이끌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한달(6/6~7/5)간 산란용실용계생산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그결과 7월 중순이후 8월 초순까지 웅삼계용 닭고기가 전혀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여름철 삼계탕 소비가 증가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육용병아리가 웅삼계용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계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로 6월의 산란용 웅추 생산잠재력은 '95년 이후 3년평균 3백94만수, '98년은 3백98만5천수로서 이는 '98년 7월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 3천3백91만1천수와 비교할 때 동월 웅추가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98년 윤(閏) 5월은 초·중복에 속해**

육류소비가 대폭 감소되는 윤달이 다가 왔다. 이번 윤달은 양력으로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로 여름철 닭고기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 기간은 다수 육계인들이 생각하길 예년의 복경기 소비신장에 비춰 닭고기소비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다.

그러나 윤달에는 소비성 행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들면 대사의 경우 날자를 앞당기거나 또는 늦춰서 큰일은 안치르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생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윤달에 태어날 경우 60년이 지나야 제 날짜에 첫 생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음력을 사용하던 시절에도 윤달에 자식이 태어나면 호적에는 대부분 양력으로 올렸다.

**사. 7월의 육계가격**

'87년 이후 11년간 7월의 육계값은 생체 kg당 1,076원으로 6월 881원보다 22%가 높았다. 이를 순기별로 보면 초순 982원, 중순 1,108원, 하순 1,132원으로 7월의 평균가격을 100으로 볼 때 초순은 8.7%가 낮았던 반면 중·하순의 경우 각각 2.9%, 5.2%가 높았다. 또한 초순을 100으로 볼 때 중순 12.8%, 하순 15.3%가 각각 높게 형성되었다.

참고로 7월의 육계값을 일별로 보면 20일 하이가격은 1,173원 24일 세미가격은 1,234원으로 7월의 육계값중에서 가장 높다.

**아. '87년 이후 복경기 육계 가격**

'98년도 복은 월복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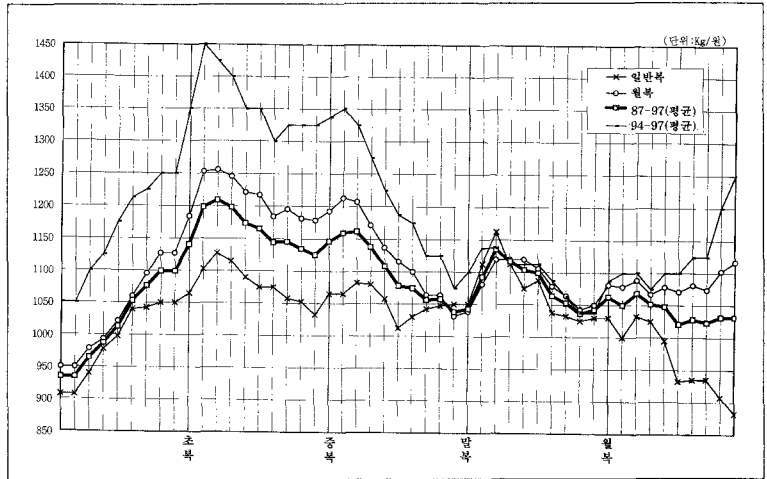
일반복은 초·중·말복의 기간이 10일 간격으로 오는데 비해 월복은 중·말복의 기간이 20일로 일반복 보다 10일이 길며, 특히 월복이 있는 해의 여름은 대체로 길고도 무더우며 늦더위가 극성을 부렸던 것이 특징이다.

삼복을 일자상으로 볼 때 초복은 7월 중순, 중복은 하순, 말복은 8월 초순 또는 중순에 항상 찾아왔다. 그 이유는 초복과 중복은 하지로부터 3번째와 4번째 경일(60간지중 경자로 끝나는날, 즉 경오, 경진, 경인, 경자)로 하고 말복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87년 이후 복경기의 육계값을 살펴보면 초복을 앞두고 상승되기 시작한 육계값은 초복으로부터 이들 뒤까지 상승세가 계속된 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중복에도 이틀간 상승된 후 또다시 하락세가 말복까지 이어졌으며, 이와 비슷한 변화는 월복에도 계속되었다. 즉, 초복을 기점으로 말복(월복)으로 가면서 산지 육계값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월복이 들어있는 해의 평균 육계값은 일반복 보

표1. 복경기 육계가격



다 높았으며 이를 일별로 보면 초복으로 부터 이들 뒤의 시세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일반복의 가장 높은 시세는 중복으로부터 이들 뒤에 형성되었다.

### 자. X변수에 의한 육계가격 추정

육계값은 조건반사에 따라 좌우된다. 즉, 생산에 있어서 소요량보다 많으면 하락되고 적으면 상승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인 것이다.

이같은 논리를 기본으로 하여 닭고기생산에 영향을 미칠 여러가지 자료를 특정공식에 대입하면 “표2” 같은 그림이 생성된다. 이를 해석하면 X변수가 생성된 이후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2.4~

2.6개월의 기간을 두고 산지 육계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변수곡선이 올라간 뒤로 일정기간이 지난면 산지 육계값은 내리고, 반대로 변수곡선이 내려가면 육계값이 올랐던 것이 예년의 통례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IMF이후 닭고기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기본적인 틀마저 깨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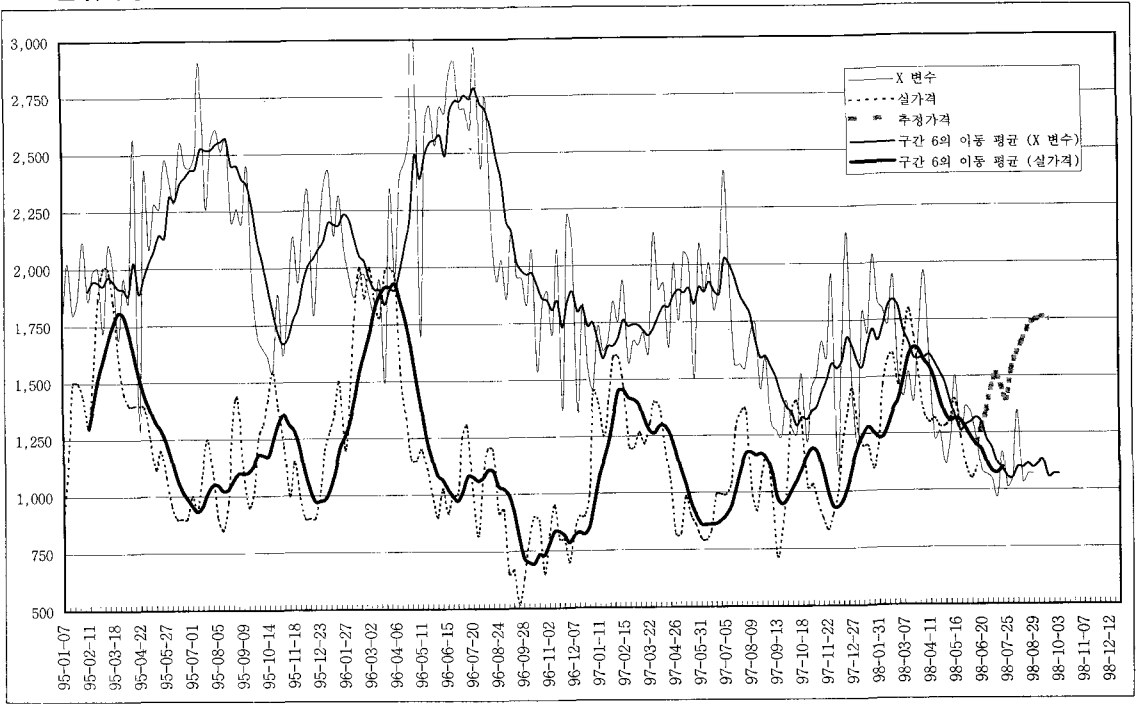
### 3. 결론

산지 육계값은 닭고기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IMF이후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큰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지 육계값은 생산비를 넘나드는 시세에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생산량의 감

표2. 변수/추정가격



소 못지 않게 소비 역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 북경기를 앞두고 빅딜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큼에 따라 향후 옥계값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렵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르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금년 북경기의 옥계값은 대체로 높은 시세가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도 북경기에 생산될 닭고기는 '90년도 이후 가장 적은량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름장마가 워낙 끝나고 무더위가 심화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함에 따라 하절기의 소비증가가 기대된다.

셋째, 윤 5월이 7월 22일자로 끝남에 따라 초복(7/12)과 중복(7/22)에 비해 말복(8/11)을 앞두고 소비신장이 기대된다.

넷째, 중복을 전후하여 웅삼계생산이 한달간 중단됨에 따라 옥삼계로 대체되면서 일시적인 공급부족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예년에 비해 5~6월의 옥계값이 비교적 높게 거래된 결과 여름철에 납품할 비축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섯째, 큰폭의 환율상승으로 수입. 비축한 물량이 지난해와 달리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여름철 수요가 생산량을 앞지를 경우 대처할 만한 비책이 없다.

이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북경기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의한 대대적인 비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8년도 북경기 옥계값은 생산비를 웃도는 대체로 높은 시세가 예상된다. 특히 구조조정이 약하게 이뤄질 경우 중복 직후의 옥계값은 예상밖의 높은 시세가 형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양계**